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역할

The Role of Architect in Educational Facilities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봄이 찾아 왔다.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된다. 특히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된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가정과는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 맞닥뜨리게 된다.

교육의 삼대요소라면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설을 일컫는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과거의 학교는 그리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좁고, 덥고, 공기질 교실이라 일컬을 만큼 열악한 교실환경에 익숙했다. 무엇보다 재래식 화장실은 아파트식 주거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은 교육시설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개선되었고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교체되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양적확대 못지않게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학교표준설계도」에 의한 설계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로 전환되었다. 학교의 모습이 다양화 되고 교과 과정에 부응하는 학교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졸업정원제에 따른 대학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대학설계도 현상설계에 의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건축에 건축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정부도 대학시설의 지원을 위한 BK사업, 누리사업 등 정책을 수행하였다.

교육시설은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기본시설과 더불어 기숙사, 체육관, 미술관, 음악관, 강당, 식당, 병원 등 또한 국제화, 정보화에 따른 시설보완과 함께 기계·전기설비 등 제반시설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건물의 안전점검, 놀이시설 안전점검, 급

식시설 안전점검, 소방 안전점검, 건물 안전점검, 공사감독 등 제반건축관련 업무가 산재하고 있다.

건물의 생애 주기는 건축의 6배 이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듯 건물도 안전진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건강기록카드가 있듯 건물이력 카드가 있어야 한다.

최근의 교육시설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초·중등학교시설은 이미 수백 개의 학교가 민간투자사업(B.T.L)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학의 기숙사 또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교장이나 대학 총장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없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관리자가 바뀔뿐더러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행정을 하기에는 벅겁다. 또한 관련 직원들도 갖은 인사이동과 더불어 수많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교육시설관련 소홀로 징계를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오는 교장들의 경우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은 몰라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고문건축사가 필요할 때다. 외국의 대학의 경우는 이미 대학자체 고용된 건축사가 있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의 시설관련 공무원의 순회 점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시설의 평생관리 측면에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와 같은 학교 고문 건축사 도입을 제안해 본다.

2012년 흑룡의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러한 바람이 입법화되는데 일조하는 선량이 뽑히길 손꼽아 기다려 본다. ■



김기남 | Kim, Gi-nam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석사)
 - 기술고시(15회)
 - 교육부 시설기획 담당관